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묶이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여럿이 한군데로 모이거나 합해지다. ‘묶다’의 피동사.

문헌의 첫 기록
15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묶이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여럿이 한군데로 모이거나 합해지다. ‘묶다’의 피동사.

묶이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묶이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뭇기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묵기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묶이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뭇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묵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묶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뭇기다
  15세기
- 묵기다
  19세기20세기
- 묶이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뭇기-, 묵기-, 묶이-

묶이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묶이다’의 옛말인 ‘뭇기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뭇기-’는 현대어 ‘묶다’로 이어지는 동사 ‘묻-’과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종성 ‘ㄵ’이 ‘ㄷ’으로 바뀌면서 19세기부터 ‘묵기-’가 나타난다.

표기 방식과 특징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묶이-’로 표기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묶이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5세기 뭇기-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뭇기-

출처 1463 법화경언해 3:156ㄴ

용례 01

문헌 용례

고ᄇᆞᆫ 사ᄅᆞᆷᄃᆞ려 道 니ᄅᆞ디 몯호ᄆᆞᆫ ᄀᆞᄅᆞ쵸매 뭇겨 이실씨니라.

현대어 풀이

고운 사람에게 도를 말하지 못함은 가르침에 묶여 있는 것이다.

19세기 묵기-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묵기-

출처 1887 예수성교전서 305

용례 02

문헌 용례

오직 늘거ᄂᆞᆫ 손ᄋᆞᆯ ᄂᆡ밀고 사ᄅᆞᆷ의게 묵긴 바 되여 ᄋᆞᆫ이 가고져 ᄒᆞᄂᆞᆫ 곳에 ᄭᅳᆯ니워 가리라 ᄒᆞ니.

현대어 풀이

오직 늙어서는 손을 내밀고 사람에게 묶인 바 되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 가리라 하니.

출처 1894 훈아진언 42ㄴ

용례 03

문헌 용례

오직 늙으매 손을 내밀고 사ᄅᆞᆷ의게 묵긴 배 되여 아니 가고져 ᄒᆞᄂᆞᆫ 곳에 ᄉᆞ을녀 가리라 ᄒᆞ시니.

현대어 풀이

오직 늙어서는 손을 내밀고 사람에게 묶인 바 되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 가리라 하시니.

20세기 묵기-, 묶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묵기-, 묶이-

출처 1929 생육신전15 용례 04

문헌 용례

이 여섯 사람의 가족을 비롯하야 련루자 일단이 함께 묵겨 사형장으로 나갈 때에.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6 조선일보 10월 28일 2면 용례 05

문헌 용례

오래 동안 사지를 묵겨 잇다가 일조에 청텬백일 아래의 몸이 되자 각기 자긔네 집으로 도라와 포주에게 그런 말을 하얏더니.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1 동아일보 8월15일 6면 용례 06

문헌 용례

간수가 문을 열자 무서운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이 포승에 묶여 들어오면서 사방을 휘 둘러보앗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묶이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묶이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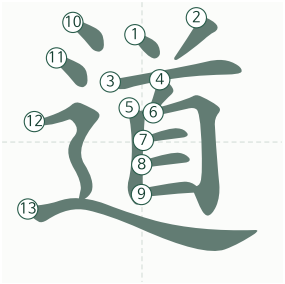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道

뜻·음 길 도

총 13획 · 부수 辶





hanja.wordrow.kr/한자/道/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